

중1-2  
국어  
비상(박영민)

2026 중1-2 국어 비상(박영민) | 3(1) 동백꽃 기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동백꽃」과 「홍길동전」 복합 지문에서는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특히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효과나 역순행적 구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토속어의 사용 효과나 작품에서 나타나는 해학성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작품에 나타난 갈등의 원인이 개인적 차원인지 사회적 차원인지 구분하고, 대조적인 인물의 성격과 갈등 해결 과정을 분석하는 유형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자’나 ‘닭싸움’ 같은 핵심 소재의 기능과 의미, 특정 대사에 담긴 속 뜻을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지문 분석이 요구됩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아댔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닭의 헛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 보니 아니나 다를까 두 놈이 또 일렀다.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박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나)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씹을 붙여 났을 것이다. 바짝 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다) 나흘 전 감자 쪄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율타리 엮는데 썩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라)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은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썩근썩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걸 또 뭐야, 싫어서 그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비속어와 과장된 어조를 사용하지만, 해학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 ② 순수한 사춘기 남녀의 사랑을 다루고 있으나, 인물 간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1930년대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하며, 도시 문명에 대한 동경을 보여 준다.
- ④ 현재와 과거가 교차하는 역순행적 구성을 따르고 있다.
- ⑤ 작품 밖의 관찰자가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2. 이 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직접 독자에게 전달하여 현장감을 높인다.  
 ㄴ. 서술자가 점순의 행동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ㄷ. 서술자의 내면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하여 인물의 감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  
 ㄹ. 서술자가 사건의 전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독자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3. 이 글에 나타난 '나'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뚝뚝하다.  
 ② 어수룩하고 눈치가 없다.  
 ③ 자존심이 강한 편이다.  
 ④ 상황을 주도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⑤ 소극적이고 순진하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 대한 점순이의 순수한 호감을 드러내는 말이다.  
 ②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시작되는 계기를 제공하는 말이다.  
 ③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한 말이다.  
 ④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다.  
 ⑤ '나'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동정심이 들어 위로하려는 의도를 가진 말이다.

【5~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는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채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달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없으리라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 서도 열일곱살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 없이 기를 북북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나) 그러나 점순이의 침해는 이것뿐이 아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저의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쌈을 붙여 놓는다. 저의 집 수탉은 썩 험상궂게 생기고 쌈이라면 회를 치는 고로 으레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툭하면 우리 수탉이 면두며 눈깔이 피로 흐드르하게 되도록 해 놓는다. 어떤 때에는 우리 수탉이 나오지를 앓으니까 요놈의 계집애가 모이를 쥐고 와서 꺾어내다가 쌈을 붙인다.

(다)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채를 차리지 않을 수 없다.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넌지시 장독계로 갔다.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는다 한다.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닭 주둥아리께로 들이밀고 먹여 보았다.

(라) 이 기회를 타서 작은 우리 수탉이 또 날쌔게 덤벼들어 다시 면두를 쪼니 그제서는 감때사나운 그 대강이에서도 피가 흐르지 않을 수 없다.

웁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아주 쟁그러워 죽겠다. 그때에는 뜻밖에

내가 닭쌈을 붙여 놓는 데 놀라서 울 밖으로 내다보고 섰던 점순이도 입맛이 쏠지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두 손으로 볼기짝을 두드리며 연방  
“잘한다! 잘한다!”

하고 신이 머리끝까지 뻗어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낮이 풀려 기둥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큰 닭이 한 번 쪼인 앙갚음으로 호들갑스레 연거푸 쪼는 서술에 우리 수탉은 찔끔 못 하고 막 끓는다.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마)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쌈을 붙여 났으니 이 망할 계집애가 필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제가 들어와 화에서 꺼내 가지고 나간 것이 분명하다.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 가두고 염려는 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소나무 삭정이를 따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암만해도 고년의 목쟁이를 돌려 놓고 싶다. 이번에 내려가면 망할 년 등줄기를 한번 되게 후려치겠다 하고 싱둥경둥 나무를 지고는 부리나케 내려왔다.

#### 5.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나’의 집안은 마름인 점순네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다.

ㄴ. ‘나’의 어머니는 ‘나’와 점순이 가깝게 지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ㄷ. ‘나’는 점순네 닭을 이기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을 사용했다.

ㄹ. 점순은 ‘나’의 닭이 자신의 닭을 이기는 모습을 보고 ‘나’의 변화에 만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6. 이 글에서 비속어를 사용한 효과로 적절한 것은?

- ① 앞으로 일어날 비극적 사건을 암시하여 서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 ② 인물의 낮은 지적 수준을 드러내어 서술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 ③ 점순에 대한 ‘나’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생생하고 현실감 있게 전달한다.
- ④ 점순에 대한 ‘나’의 친밀감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두 인물의 유대를 강조한다.
- ⑤ 사실감을 떨어뜨려 허구적 성격을 강조한다.

#### 7. 이 글에 나타난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점순의 행동 의도를 오해하여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 ② 점순은 자신의 호의를 몰라주는 ‘나’와 외적 갈등을 빚고 있다.
- ③ 마름과 소작인이라는 신분 차이가 인물 간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④ ‘나’는 점순네에 대한 경제적 종속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갈등을 일으킨다.
- ⑤ ‘나’는 닭싸움이라는 비언어적 방식을 통해 진행되는 갈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8. (나)~(라)에 드러난 '점순'의 태도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자신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 ㄴ. 자신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 ㄷ. 자신의 우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
- ㄹ. 상대방과의 갈등을 회피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9. (나)에서 나타나는 '닭싸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 대한 점순의 관심과 애정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다.
- ② '나'와 점순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심화시키는 매개체이다.
- ③ 점순의 호의를 거절당한 것에 대한 '나'의 보복 심리를 드러낸다.
- ④ 어수룩한 '나'와 당돌한 점순의 성격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 ⑤ 두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까지 영향을 미친다.

10. ㉠에 해학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점순의 호의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여 상황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② 점순의 행동에 담긴 실제 의도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생각이 서로 어긋나 있기 때문이다.
- ③ 점순이 자신보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나'를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
- ④ 닭싸움이라는 유치한 행동을 통해 심각한 갈등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 ⑤ '나를 말려 죽이려고'와 같은 표현을 통해 점순이 '나'에게 주는 고통의 크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11~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거지반 집께 다 내려와서 나는 호드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산기슭에 널려 있는 굵은 바윗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룩하니 깔리었다. 그 틈에 끼어 앉아서 점순이가 청승맞게시리 호드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도 더 놀란 것은 그 앞에서 또 푸드득, 푸드득, 하고 들리는 닭의 헛소리다. 필연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쌈을 시켜 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드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나) 가차이 와 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고대로 앉아서 호드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리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격실격실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었었다. 닭은 폭 었어진 채 다리 하나 꿈쩍 못 하고 그대로 죽어 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홑뜨고 닥치는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④

(가), (나)는 오늘(현재) 일어난 닭싸움 사건이고 (다), (라)는 나흘 전(과거) 있었던 감자 사건으로, 현재의 사건을 먼저 제시한 뒤 과거의 사건을 서술하는 역순행적 구성이다.

① 비속어와 과장된 어조는 어수룩한 서술자의 모습을 통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므로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② 점순이 건넨 감자를 ‘나’가 거절한 사건을 계기로 ‘나’와 점순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심화된다.

③ 1930년대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작품 속에서 도시 문명에 대한 동경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이 글은 작품 속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다.

### 2. 정답 ④

ㄱ.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여 현장감을 준다.

ㄴ. 점순의 애정 표현을 괴롭힘으로 오해하는 어수룩한 모습을 통해 웃음을 유발한다.

ㄷ. (나)의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등에서 ‘나’의 심리가 직접 드러난다.

ㄹ. 서술자인 ‘나’는 점순의 행동을 자신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할 뿐, 사건의 전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못한다.

### 3. 정답 ④

‘나’는 점순과의 관계에서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점순의 닭싸움 도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인물이다.

① 점순의 호의에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라고 통명스럽게 대답하는 모습에서 무뚝뚝한 성격을 알 수 있다.

② 점순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어 감자를 주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모습에서 어수룩한 성격을 알 수 있다.

③ “느 집엔 이거 없지?”라는 점순의 말에 자존심이 상해 감자를 거절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⑤ 점순이 닭싸움을 걸어와도 마름의 딸이라는 점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점순의 애정 표현을 괴롭힘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소극적이고 순진한 성격을 알 수 있다.

### 4. 정답 ⑤

㉠은 점순이가 ‘나’에게 가진 호감으로 인한 말이며, ‘나’를 동정하거나 위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① 점순은 ‘나’에게 호감이 있기 때문에 감자를 주며 말을 건 것이므로, ㉠은 점순의 호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② ‘나’는 ㉠에 자존심이 상해 점순의 호의(감자)를 거절했고, 이로 인해 점순이 화가 나 닭싸움을 거는 등 갈등이 시작되었다.

③ ㉠은 ‘나’의 집안 형편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한 말이 되었다.

④ ‘나’는 ㉠으로 인해 자존심이 상하여 감정이 상했다.

### 5. 정답 ①

ㄱ. (가)에서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ㄴ. (가)에서 어머니가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주의를 주었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ㄷ. (다)에서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 기운이 뻘친다 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민간요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ㄹ. (라)에서 ‘나’의 닭이 점순네 닭을 쪼자 점순이 ‘입맛이 쏘지 눈살을 찌푸렸다’는 내용을 통해 기분이 상한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 6. 정답 ③

‘고년’, ‘망할 년’ 등의 비속어는 점순의 계속되는 닭싸움 도발에 대한 ‘나’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직접적이고 생생하게 보여 주는 효과가 있다.

① 비속어가 긴장감을 줄 수는 있으나, 앞으로 일어



날 비극적 사건을 암시하고 있지 않다.

② 인물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이지, 지적 수준이나 서술의 신뢰도와는 관련이 없다.

④ 친밀감이나 유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감과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⑤ 사실감과 현장감을 느끼게 한다.

7. [정답] ④

‘나’는 점순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마지못해 대응할 뿐, 경제적 종속 관계를 극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갈등을 주도적으로 일으키지 않는다.

① (가)의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 없이 기를 북북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에서 ‘나’가 점순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점순이 계속 닭싸움을 붙이는 행동은 ‘나’에 대한 서운함과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므로 외적 갈등에 해당한다.

③ (가)에서 ‘나’의 어머니가 신분 차이를 언급하며 점순과의 관계를 주의하라고 말하는 등, 신분 차이는 ‘나’가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배경이 된다.

⑤ ‘나’는 점순에게 직접 따지지 못하고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8. [정답] ④

ㄱ. (나)에서 닭싸움을 붙이고, (라)에서 ‘나’의 반응을 보며 깔깔거리고 웃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

ㄴ. (라)에서 자신의 닭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자 ‘입맛이 쓴지 눈살을 찌푸렸다’며 실망감을 드러낸다.

ㄷ. (나)에서 자신의 ‘대강이가 크고 실박하게 생긴’ 수탉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나’의 닭을 괴롭힌다.

ㄹ. 점순은 대화를 시도하기보다 닭싸움이라는 공격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9. [정답] ③

‘닭싸움’은 점순이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나’에게 보복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시작한 것이지, ‘나’의 보복 심리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다.

① 점순은 닭싸움이라는 거친 방식을 통해 역설적으로 ‘나’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② ‘나’가 점순의 감자를 거절한 후, 점순이 닭싸움

을 붙이면서 둘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심화된다.

④ 닭싸움에 대한 두 인물의 반응을 통해 순진하고 어수룩한 ‘나’와 적극적이고 당돌한 점순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⑤ 닭싸움이 극에 달해 ‘나’가 점순네 닭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두 인물이 화해하게 되므로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된다.

10. [정답] ②

이 구절의 해학성은 점순이 ‘나’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는 행동을, ‘나’는 자신을 ‘까닭 없이’ 괴롭히는 것으로 완전히 오해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처럼 인물의 실제 의도와 서술자의 인식이 어긋나는 데서 독자는 아이러니와 웃음을 느끼게 된다.

① ‘나’는 점순의 호의를 정말로 알지 못하는 순박한 인물이지,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다.

③ 점순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갈등의 내용일 뿐 해학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

④ 이 장면은 갈등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아니며, 닭싸움과 관련된 내용은 (나)에 제시되어 있다.

⑤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닌 과장된 표현이며, 해학성을 유발하는 이유가 아니다.

11. [정답] ⑤

‘나’는 점순의 의도를 오해하여 찾김에 일을 저지르고, 그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는 순박하고 다소 어수룩한 인물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갈등을 계산적으로 이용하는 영악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① (나)에서 찾김에 점순네 닭을 ‘단매로 때려 엎었다’는 점에서 감정적이고 다혈질적인 면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며 현실적인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③ (다)에서 점순이 ‘안 그럴 테냐?’고 묻는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대답하는 모습에서 순진한 특성을 알 수 있다.

④ (다)에서 일을 저지른 후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는 모습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